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04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獨, 체제 전복 목적 정전·납치 모의 극단주의자 체포
 - 4.13 수사당국은 내전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, △ 전력공급시설 파괴 △ 보건장관 등 유명인사 납치를 모의한 극단주의자 4명을 체포
 - * 소총 등 총기 22점·탄약 수 백발·현금·금괴·은화 등을 압수

미주

- 美 배심원단, 미국인 인질 참수 ISIS 조직원 유죄 판결
 - 4.14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시리아에서 미국인 언론인과 구호단원을 인질로 잡고 이들을 살해하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로 수단 출신 영국 국적의 ISIS 조직원 「엘사피 엘셰이크」에 대해 유죄를 판결
 - * 同人은 인질살해 동영상에서 영국 억양을 구사해 'ISIS 비틀스'라는 별칭 보유
- 美, 러시아 '테러지원국' 지정 검토 시사
 - 4.19 「프라이스」美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, “사실과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수 주일 동안 지정 여부를 고심할 것”이라고 언급
 - * 美 지정 테러지원국 현황(4개국) : 시리아('79), 이란('84), 북한('17 再지정), 쿠바('21 再지정)
- 美 뉴욕市, '증오범죄' 전년 同期 대비 76% 증가
 - 4.17 뉴욕 경찰청은 금년 연초부터 지난 10일까지 뉴욕市 발생 증오범죄는 총 194건으로 전년 同期 110건보다 76%가 증가하였으며, 흑인 대상 관련범죄가 2배, 유대인에 대해서는 3배 증가하였다고 보도
 - *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, 지난해 폭증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- 아프간 탈레반, 再집권 후 과거 공직자 490명 살해
 - 4.13 NYT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, 아프간 탈레반이 지난해 8월 再집권시 발표한 사면·관용의 약속을 어기고 투항한 前 정부 출신의 관리·경찰·군인 등 490명을 고문·살해하였다고 보도
 - * 탈레반은 지난 '21.8.16 아프간 장악 후 첫 기자회견에서 “우리와 맞선 자들을 사면하고, 관용을 베풀겠으며 여성 인권과 교육도 허용하겠다”고 발표

중 동

- 이라크, 자국내 ISIS 은신처 대규모 소탕작전 개시
 - 4.13 이라크 보안군은 북부 키르쿠크州의 ISIS 근거지들을 향한 대규모 소탕작전을 개시했으며, 이는 同 테러단체가 최근 이 지역에서 군부대와 초소들을 공격해왔기 때문이라고 발표
- 이란 혁명수비대(IRGC), 자체 개발 ‘자폭드론’ 실전 배치
 - 4.19 이란 국영방송은 자국 이란혁명수비대가 자체 개발한 신형 자폭 무인기 ‘메라즈 504’를 실전 배치하였으며, 同 기종은 2.5kg 상당의 폭탄을 탑재하고 1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
 - * 한편, 외신들은 이란의 고성능 자폭드론 제조기술이 예멘 후티叛軍 및 이라크·시리아內 親이란 무장단체에 유입될 가능성 제기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대테러 합동 작전으로 테러범 100여명 사살
 - 4.17 나이지리아 다국적합동태스크포스(MNJT)는 최근 일주일간 차드湖 부근에서 니제르·카메룬軍과 대테러 합동작전을 전개해 보코하람과 ISWAP 주요 지휘관 10명을 포함 테러범 100여명 사살했다고 발표
 - * 한편, MNJT는 이번 작전을 통해 테러범들에게 포로가 된 시민들도 구출

이스라엘, 텔아비브 소재 유대인 식당 겨냥 자살 폭탄테러

- '06.4.17, 13:30분경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위치한 유대인 식당 '샤와르마 레스토랑'(Shawarma Restaurant)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11명 사망·70명 부상
 - * 피해자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
- 수사 결과, 테러범은 팔레스타인 남성 「사미 살림 하마드」 (21세, Sami Salim Hamad)로 식당 입구에서 경비원이 검사를 위해 가방 개봉을 요구하자 곧바로 자폭한 것으로 확인
 - * 사건 직후, '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'(Islamic Jihad)가 공격 배후를 자처
- 이-팔 양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호 비방전을 전개
 -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 「기드온 메이어」 (Gideon Meir)는 “하마스가 모든 테러조직을 지원 중이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”라고 주장
 - * '06년 1월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
 - 팔레스타인 내부부 대변인 「칼레드 아부 힐랄」 (Khaled Abu Hilal) 은 “이스라엘의 침략과 점령의 결과이다”라며 공격을 정당방위로 규정
- 한편, 美 부시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'테러'로 규정하며, “변명의 여지도 정당성도 없는 비열한 행위일 뿐이다”라고 비난

<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>
Palestine Islamic Jihad(PIJ)

- (목표/이념) '79년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 / 아랍민족주의, 이슬람원리주의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이란(재정지원), 헤즈볼라(자금 및 운영기법 전수), 하마스
- (핵심인물) 지야드 알 나칼라(지도자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서안·가자지구, 이스라엘, 레바논, 시리아
- (주요동향) ① '14.3 이스라엘 남부 도시로 로켓(130발) 공격, ② '15.8 시리아에서 골란고원과 갈릴리지역으로 로켓(4발) 공격, ③ '19.5 하마스와 합동으로 이스라엘 겨냥 로켓 700여발 발사, ④ '20.2 이스라엘 남부 겨냥 로켓공격 자행